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통권 제 161호

발행일 : 2006년 2월 12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2006 제직 수련회,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제시

“갈등사회 속에서 교회의 통합적 역할은 화해와 섬김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로 사회와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와 참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됐다. 다원화된 현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러가지 이유로 갈라진 공동체의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2월 5일 오후 3시 30분 "2006 제직 수련회"가 새벽이슬(청년부 찬양팀)의 찬송인도로 시작되었다. 이상호전도사를 비롯한 청년들의 찬양인도는 성도의 하나됨에 새 힘을 더했다. 특순을 맡은 이해정 집사는(시온 찬양대)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워라" 등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제직수련회에

참석한 제직과 사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였다. 특강 강사인 임성빈교수(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는 빌1:8-11의 말씀을 기초하여 갈등사회 속에 교회의 통합적 역할을 강조했다. 임교수의 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는 과제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들자고 설교했다. (2면에서 계속)

쓰레기 분리수거 [함즐함울 캠페인2] 2면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

2006년 예산보고 3면

지난 4일 열린 2월 당회에서 2006년도 각부서의 예산이 확정 되었다.

의료선교활동 안내 및 팀원 모집 3면

[교육부서 소개] 유아부 3면

English Ministry, Celebrating the Bing-uh Festival in Kangwon-do.

영어예배사역팀, 살아있는 빙어 잡으면서 활짝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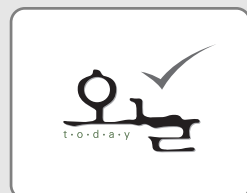
On February 4, 2006 16 people from the English Ministry went to celebrate the annual Bing-uh (smelt) Festival in Kangwon-do. Enjoying a fun day of fishing, viewing ice sculptures and sledding, members were able to grow closer to one another as they shared meaningful conversations, ate interesting foods and played in the snow. Some of the unique food dishes included spicy bing-uh salad, fried bing-uh, and live bing-uh! Before the trip began, there were rumors that people sometimes eat the bing-uh alive as soon as

they catch the fish. At that point, while many people had tried raw fish, no one was planning on trying LIVE fish.

But when the EM members arrived on site and caught some of the cute fish, their curiosity got the best of them and many ate the live fish! Their face expressions as they chewed on the wriggling fish were unforgettable, and many even enjoyed the live delicacies!

While this day was an enjoyable one for all who attended, it was an especially unforgettable day for the foreigners. The foreign members of the EM, including the Korean-born who have immigrated abroad, they shared experiences that day that the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if the English Ministry did not offer the trip. The EM looks forward to ministering to such members, that they may grow in their love for the Lord and also enjoy and serve the Korean culture in which the Lord has placed them. (4면에서 계속)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로 초대하십시오. 4부예배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CCM남궁송옥



CCM장근희

오늘 4부 예배는 이정용 마리까르멘 부부가 나와 위기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한다. 또한 CCM 아티스트 남궁송옥과 장근희 자매가 하모니를 이루어 '주의 반석 위에', '온 맘 다해' 등을 노래하게 된다. 장근희자매는 현재 주님의교회 30CUP 예배에 보컬로도 사역하고 있다.

Misson 함줄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1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남사스럽게 울긴 왜 울어?
불기 전에 어서 짜장면
곱배기나 먹자”



“우는 소녀(?)를 달래는 친구의 말속에서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찾아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많이 있다. 단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국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함줄함울은 앞으로 CBS(표준FM 98.1) 라디오방송 [뉴스 매거진 오늘 : 정범구 진행]에 출연해 한국말의 바른 사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제훈(39, 농학박사)씨의 자료에 기초, 우리가 흔히 부적합,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올바르게 고치는 흥미로운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

위의 문장속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남사스럽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표준어는 ‘남우세스럽다’로 남들 보기에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만하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남세스럽다’는 이 표준어의 준말이다. 또한 표준 국어에서 외래어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래어인 “짜장면”도 “자장면”으로 표기하고 발음해야 한다. 반면 “곱배기”는 순우리말이다. “곱배기”는 “곱빼기”의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는 것’을 표현 할 때는 “불다”가 아닌 “분다”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남우세스럽게 울긴 왜 울어? 불기 전에 어서 자장면 곱빼기나 먹자”

함줄함울 인터뷰 / 시온찬양대 지휘자 김인수교수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 졌습니다.”

2006년 새롭게 시온찬양대의 지휘를 맡은 김인수 교수는 부인이 영미씨와 두 아들 다한(군복무중), 다운(고1)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현재 그는 세종대 음악과 교수(성악-베이스)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교수는 오페라와 같은 공연예술은 물론 열린 음악회와 같은 사회 문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암, 강남순복음, 세종대학교 교회 등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해 왔다. 그는 하나님과의 가장 소중했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한다.

언젠가 독창회 때 모든 프로그램이 마친 후 앙코르곡으로 찬송가 102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전주가 흘러 나왔고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려는 순간, 이 찬양은 저의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내용의 찬양이라는 것과,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 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저는 청중이 아닌 주님께 고백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청중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의 찬양이야말로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한 그는 시온찬양대를 통한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찬양대는 교인을 대표하여 세워진 찬양공동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므로 공동체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43:21)”는 성경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하신 뜻이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노래나 음악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음악적 기술의 향상이 아닌 삶으로 드러지는 찬양으로 발전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음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복음)은 예배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찬양을 통한 복음의 직접선교와 성도들을 찬양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끝으로, 찬양대원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과 모든 모임에 대한 철저한 시간 관리를 당부했다.

두드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006 시온찬양대는 새대원을 모집합니다. 성악,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도로 함께한 노래는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것입니다. 두드려 주십시오. 시온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문의

문지기 최성준 집사 011-9707-7988

도우미 박철수 집사 011-9747-9458

[즐거운교회생활 캠페인2]

쓰레기 분리수거, 작은 일부터 습관화 합시다!



즐거운 교회생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쓰레기 분리에 관한 것이다. 매주일 예배와 각 모임이 끝나면 교회의 곳곳에는 부서에서 사용한 쓰레기가 발생한다. 교회건물 안에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함이 있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수거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주일 오후, 종이컵과 은박지, 나무젓가락 등이 한데 뭉쳐 버려져 있는 밍상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함 줄 함 울은 ‘주일 엘리베이터 사용은 장애인과 노약자 우선’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즐

만 신경을 쓰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종이컵과 캔은 안의 내용물을 다 버린 후 납작하게 눌러서 종이류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각각 넣고, 나무젓가락 등은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는 번거롭더라도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분리함에 버려야 한다. 간혹 무심코 화장실 번기에 버린 컵라면 찌꺼기로 인해 예상치 않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여름철 각 부속실에 남겨진 음식물이 부패하면 악취가 발생해 교회의 청결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는 현대생활에서, 교회부터 이 작은 일을 시작하여 본을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의 교회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어렵지 않다. 교회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지런히 애쓰고 있지만,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

(1면에 이어서)

2006 제직 수련회,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제시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만인제사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임을 강조했다. 100분이라는 긴 강의였지만, 참여한 제직과 사역자들은 준비된 자료집을 따라 읽으며 메모를 하는 등,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강의 후 식당으로 이동한 참석자들은 권사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했다.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제직들과 사역자들에게 봉사는 귀한일이며 항상 같은 마음과 기쁨으로 사역하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주님의교회 2006 예산 (2006. 2. 4 당회 의결)

1. 수입예산

구분	과목	2005 결산	2006 예산
현금수입	일반헌금		
	신 일 조	2,567,822	
	주 일	1,008,539	
	갑 사	320,893	
	교회학교	54,915	
	소 계	3,952,169	4,545,000
	절기헌금		
	신 년	46,816	
	부 활 절	63,058	
	추수감사	72,229	
현금외수입	목적헌금		
	성 탄	44,604	
	소 계	226,707	260,713
	선 교	31,860	
	구 제	83,618	
	기 타	17,561	
	소 계	133,039	152,970
	합 계(115%)	4,311,915	4,958,683
	예 전	59,592	68,530
	주 방	17,652	20,300
	데 일	3,073	3,533
	기타(이자 등)	-	-
	서 절	33,363	38,367
	카 페	35,235	40,520
	기 타	10,334	11,880
	소 계	159,249	183,130
	합 계(115%)	4,471,164	5,141,813
	전기이월	236,557	168,613
	자본계정	180,000	162,000
	총 계(111.9%증가)	4,887,721	5,472,426

2. 지출예산

A. 선교지역본부

(*표는 대외 경비)

사역팀명	2005 결산	2006 예산
해외선교지역팀	108,502	전문인선교팀(의료) 58,400
의료선교팀	3,048	전문인선교팀(일반) 10,000
캄보디아선교팀	37,739	단기선교팀 20,000
몽골선교팀	-	선교지원팀 119,000
중국선교팀	14,869	주한외국인선교팀 10,000
주한외국인선교팀	6,400	말북자지역팀 25,000
캄보디아선교본부	-	농어촌교회지역팀 94,000
말북자지역팀	12,150	도시개혁교회지역팀 40,000
농어촌교회지역팀	83,074	군부대교회지역팀 40,000
도시개혁교회지역팀	35,900	캄보디아선교본부 236,500
군부대교회지역팀	33,855	본부지역팀 25,931
육군훈련소선교팀	28,511	
합 계	*364,048	*678,831

B. 복지지역본부

사역팀명	2005 결산	2006 예산
하프타임지역팀	3,600	하프타임지역팀 10,000
환경지역팀	-	환경지역팀 2,000
호스피스지역팀	13,336	호스피스지역팀 20,000
법률상담지역팀	-	법률상담지역팀
전환상담지역팀	2,184	전환상담지역팀 3,000
복지선교팀	38,728	복지선교팀 180,000
장애인지역팀	6,178	장애인지역팀 9,000
기관선교팀	76,300	기관선교팀 111,700
구제지역팀	88,749	구제지역팀 84,000
119지역팀	34,957	119지역팀 10,300
소년소녀가장지역팀	26,674	소년소녀가장지역팀 55,000
결식아동지역팀	18,274	결식아동지역팀 30,000
단전단수가정지역팀	813	단전단수가정지역팀 9,000
일용근로자지역팀	6,913	일용근로자지역팀 14,000
노숙자지역팀	1,200	노숙자지역팀 12,000
합 계	*317,906	*550,000

C. 교육지역본부

사역팀명	2005 결산	2006 예산
통합유아부	2,875	통합유아부 4,500
통합아동부	4,464	통합아동부 7,000
영아부	3,471	영아부 6,000
유아부	7,787	유아부 10,000
유치부	9,659	유치부 10,160
유년부	15,467	유년부 19,000
초등부	21,426	초등부 28,000
소년부	19,401	소년부 28,000
교육지원부	58,513	교육지원부 74,000
중등1부	37,013	중등1부 33,000
중등2부	-	중등2부 25,000
고등부	37,193	고등부 38,000
유소년축구팀	7,209	유소년축구팀 13,340
AWANA지역팀	25,456	AWANA지역팀 28,000
청년부	56,560	청년부 76,000
30대지역팀	12,015	30대지역팀 20,000
학원선교팀	*74,583	학원선교팀 *77,000
청소년지역본부	*69,561	청소년지역본부 *200,000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14,000
합 계	462,653	711,000

D. 봉사지역본부

사역팀명	2005 결산	2006 예산
봉사부	50,720	봉사부 63,450
주방부	38,089	주방부 43,000
주차안내부	5,299	주차안내부 3,600
자원봉사연결팀	3,735	자원봉사연결팀 2,000
일반한물가팀	7,863	일반한물가팀 8,000
서점지역팀	21,512	서점지역/도서실팀 20,174
결혼예식팀	770	결혼예식팀 1,000
홍보출판팀	22,620	홍보출판/한글한글 35,776
한글한글편집팀	10,788	홍양지역팀 1,000
음향지역팀	821	음향지역팀 1,000
영상지역팀	1,643	영상지역팀 14,000
도서실지역팀	17,567	경조2부 11,000
경조1부	6,844	예비비 30,000
경조2부	6,602	
합 계	194,873	234,000

E. 목양지역본부

사역팀명	2005 결산	2006 예산
예배부	20,743	예배부 22,000
안내부	1,484	안내부 1,500
통역지역팀	2,799	통역지역팀 *2,000
새벽기도지역팀	-	새벽기도지역팀 500
세례지역팀	4,539	세례지역팀 6,000
호산나찬양대	25,186	호산나찬양대 25,800
시온찬양대	47,373	시온찬양대 41,800
살롬찬양대	40,984	살롬찬양대 41,800
할렐루야찬양대	20,663	할렐루야찬양대 20,000
새가족지역팀	14,745	새가족지역팀 20,000
가정지역팀	8,777	가정지역팀 10,000
양육지역팀	12,861	양육지역팀 10,000
목요모임팀	2,951	목요모임팀 2,000
중보기도지역팀	8,410	중보기도지역팀 8,000
전도예배지역팀	*66,638	전도예배지역팀 *80,000
영어예배지역팀	*6,557	영어예배지역팀 *8,000
동호회지원팀	-	동호회지원팀 -
인터넷팀	22,260	인터넷팀 20,000
교회사편찬팀	-	교회역사자료보존팀 -
합 계	306,970	386,000

F. 기타 지역위원회

사역팀명	2005 결산	2006 예산
재정위원회	1,097	재정위원회 2,000
장학위원회	*132,512	장학위원회 170,000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
주님의동산	641	주님의동산 200,000
사무국	1,526,150	사무국 1,500,467
정신학원	261,077	정신학원 *430,128
목회행정	109,761	목회행정 80,000
교회번식	*294,932	교회번식 *50,000
예비비	-	예비비 300,000
합 계	2,326,170	2,732,595
총 계	3,972,622	5,292,426

G. 자본 예산

구분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비품		40,841			50,000	
차량운반구		29,000				
전세보증금	180,000	169,000		162,000	130,000	
차입금외		531,480				
계	180,000	770,321	-590,321	162,000	180,000	-18,000

[참고] 대내외 배분 비율

49.82 : 50.18

대외항목	대외예산	비고
선 교	*678,831	
복 지	*550,000	
교 육	*291,000	
목 양	*90,000	
장 학	*136,000	170,000 의 80%
사 무 국	*160,000	목회행정 포함
정신학원	*430,128	
교회번식	*50,000	
예 비 비	*270,000	300,000 의 90%
합 계	*2,655,959	5,292,000 중

“살롬 ~!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유아부입니다



2006년 유아부에서는 늦 2:40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자라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 현재 유아부는 최인영 전도사, 박선화 부장집사를 비롯, 헌신하는 31명의 교사들과 약 70여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예배 및 교육공동체이다.

유아부는 2006년 10개의 반을 만들어 각반에 담임교사 1명과도우미 교사 2명을 배정하여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유아부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은 손유희, 찬양 배우기, 만들기, 반별 성서학습, 말씀암송, 생일잔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된다. 유아부 교사들은 매주 11시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11시 30분부터 3부 예배가 마치고 부모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예배와 교육활동을 한다. 매월 열리는 교사모임에서는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논의하며, 특별히 유아부 어린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유아부의 고선옥 권사는 주님의교회에 속한 4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유아부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섬기며 교육하는 유아부교사들을 자랑했다.

주님의교회 유아부

대상 : 4-5세의 어린이

시간 :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유아부실(1층 교회사무실 옆)

의료선교부, 의료선교에 동참할 의료직업 관련한 일꾼 모집

“의료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의 도구입니다”



2006년 2월 5일 신천의 한 음식점에서 의료선교팀모임이 있었다. 30여명이 참여한 올해의 첫 모임은 한 해를 계획하고, 의료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기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현재 의료 선교팀은 매월 한 번씩 주일 예배 후 광장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와 안산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방문해서 의료혜택의 사각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외의료선교, 주일 응급실 운영과 건강 검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사해 왔고 또 계획 중에 있는 것들도 있다.

의료선교팀 부장 김학원 집사는 선교팀원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없기를 소망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달란트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동역자(현직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를 간절히 찾고 말했다.

문의 : 의료선교팀장 김학원집사 011-9769-6937

“2006년은 많은 성도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봉사하는 한 해가 되길”

봉사부, 주차 안내부, 주방부 봉사인원이 많이 부족해



2006년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봉사사역본부는 봉사할 일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계속 해서 주방부, 봉사부를 성도들에게 소개한다.

주방부는 주일 새벽 5시부터 국수의 맛있는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새벽부터 나와서 주방 봉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방부는 매 주일마다 2,500여 그릇의 국수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매 주일, 구역별로 돌아가며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구역마다 다르고, 간혹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자리를 비워 공백이 생기는 등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방부 사역을 마무리하는 3부 예배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의 시간에는 주방의 전체적인 집기를 씻고, 청소하고, 책

상과 의자를 정리하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주방부는 이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남자 성도들의 자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또한 봉사부는 주일에 로비에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물을 끓이고, 뜨거운 커피를 나르고, 잔을 씻고, 다시 나르는 일 등을 함께할 성도들을 찾고 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의 하나 됨을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봉사사역본부장인 박호길 장로는 교회봉사의 기회는 자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의 봉사현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면했다.

봉사사역본부 신청 문의

봉사사역본부:

박의일 목사 011-334-4076,

이호 목사 011-496-2334

차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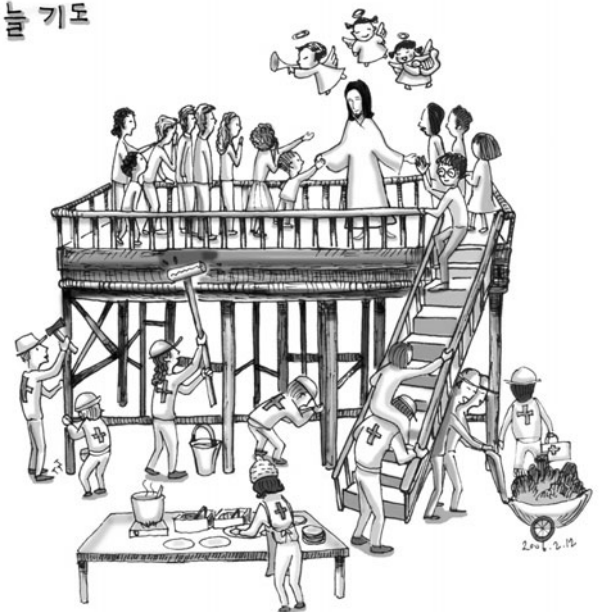
김동일 안수집사 011-279-6610

총무 이재덕 집사 010-6346-3551

주방부: 유은숙 권사 016-620-3445

봉사부: 김영봉 안수집사 011-207-1966

오늘 기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2월 18일(토), 2006년을 여는 PTP 기도회

우리의 기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주님의교회 교육사역본부에 서는 2005년 많은 학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의 참여로 은혜 가운데 이어졌던 PTP (Parents Teacher Prayer)를 다시 시작한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길 원한다면 그들의 영과 육의 멘토인 부모와 교사부터 먼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이 기도회가 시작 되었다고 말한다. 2006년 전반기 기도회는 3월11일부터 6월 10일 까지 매주 토

요일 1층 소예배실에서 열린다. 연속되는 기도회 시간에는 '21세기 다니엘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홍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PTP는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2월 18일(토)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PTP를 여는 기도회를 가진다. 방학 중에 열리는 이번 모임은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English Ministry, Celebrating the Bing-uh Festival in Kangwon-do. 영어예배사역팀, 살아있는 빙어 잡으면서 활짝 웃었다.



함께한 지체들은 모두 행복해 했다. 그들은 빙어 낚시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지난 2월 4일, 16명의 영어 예배 공동체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해마다 열리는 빙어축제에 참여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부는 바람은 서로가 매우 추웠지만

이야기 나누었고, 전시된 대형 얼음조각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눈썰매를 타기도 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처음으로 먹어보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빙어무침, 빙어회, 빙어튀김 등이었다. 살아있는 생선을 날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접시위에 올라온 빙어를 보자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한바탕 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호기심 많은 지체들을 선두로 외국인 지체들까지도 산 빙어를 먹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루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한 모두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이번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영어사역을 담당하는 나현수 전도사는 말했다.

주님의교회 영어사역팀은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한국인 2세는 물론 한국에 거주 혹은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보살피며 예배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찬사역팀의 사명과 보람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찾습니다.”

주님의교회 짝수 달 첫 번째 주일, 성찬주일로 지킨다.



다. 1,2,3부 예배와 청년 예배, 영어 예배를 합하여 세례 교인 약 3,000명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 예배부 성찬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전 나누셨던 성만찬을 기념하고 영적인 임재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예배를 위해 바쁜 토요일을 보내야 한다. 예

주님의 교회 는 두 달에 한번, 짝수 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지난 주일은 2006년의 첫 성찬일이었

배당에 상과 성찬기를 배치하고 성찬위원으로 봉사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명찰을 각 좌석에 부착하게 된다. 성찬 당일인 주일에는 성찬팀의 손길이 더욱 바빠진다. 각각의 예배시간에 목회자와 100여명의 성찬위원들이 지정된 자리에서 떡과 잔을 분배하는 동안, 성찬팀은 전 예배에 사용한 떡과 포도주를 재점검하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게 된다. 사용한 잔을 모두 수거하고 2부 때 쓸 포도주를 보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대예배실의 상, 하층, 중예배실, 소예배실, 집회실3, 그리고 자모실까지 성찬을 담은 그릇을 들고 분주히 오르내리게 된다. 겨울이지만 땀이 후끈 달아오르는 이 사역은 성찬팀을 맡고 있는 이성래 집사와 예배부 부장인 박인호집사, 팀원인 조영

를, 신형익, 김명준, 이석집사가 담당하고 있다.

성찬팀의 또 다른 사역은 2층에 위치한 정신학원 수련실에서 포도주와 떡을 성찬기에 배분하는 일이다.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성찬그릇을 들고 내는 일은 이미화, 이은승, 이은진, 서광숙, 김예식, 최승의, 조희연집사 등이 맡고 있다. 청년 예배가 끝나고 4시쯤이 되야 비로소 성찬 봉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예배부의 성찬팀은 10년을 하루 같이 팀장으로 섬김이 이미화 집사를 비롯, 다년간 성실히 봉사한 숨은 봉사자들이 많은 곳이다. 성찬팀원 모두는 힘들고 반복적인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 배푸시는 성찬을 직접 자신의 손과 발로 준비한다는 한 가지 사명과 보람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할 남녀 집사들의 참여가 줄 잇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올해에 팀장을 맡은 김예식 집사에게 문의하면 된다.